

## ‘코로나19’ 긴급지원·힐링 콘텐츠 마련

### KT, 대학 온라인 강의 ‘인터넷 용량’ 증설 SKT 고객들에게 ‘명상’ 전용 서비스 제공

KT와 SKT 등 통신사들이 ‘코로나19’ 여파로 대학 개강이 미뤄지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대학 온라인 강의 긴급 지원과 코로나로 지친 고객들에게 마음을 달랠 ‘명상’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24일 KT에 따르면 최근 각 대학들의 온라인 강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인터넷 용량을 긴급 증설하고, 전담 인력을 적극 투입하고 있다.

KT는 많은 학생들이 학교망에 접속하면서 일부 학교는 서버가 다운되고 온라인 강의 영상이 끊기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ICT기술센터를 중심으로 기술지원체계를 준비했다.

가장 먼저, KT인터넷 회선을 기반으로 전산망을 운용 중인 전국 대학교들이 원활히 온라인 강의를 제공토록 대학별 상

황에 맞춰 인터넷 용량을 긴급 증설했다. 지난 19일 기준으로 전국 120개 대학의 인터넷 용량 긴급 증설을 완료했다. 또, KT는 대학별 전담 기술인력을 투입해 온라인 강의를 실시하면서 발생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전문 기술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별 강의 유형, 접속방식 분석 및 트래픽 증가량 예측으로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KT 주요 네트워크 구간인 트래픽 변동상황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강화했다.

KT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대학교 강의가 온라인으로 이뤄지는데 KT는 학생들이 차질 없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KT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사회 전 영역이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통신 인프라와 ICT 노하우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SK텔레콤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사



KT는 최근 각 대학들의 온라인 강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대학별 상황에 맞춰 인터넷 용량을 긴급 증설했다. /KT 제공

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고객에게 도움을 주고자 AI(인공지능) 스피커 ‘누구(NUGU)’ 전용 명상 서비스 ‘누구 마음보기’를 제공하고 있다. ‘누구 마음보기’는 총 41종의 명상 콘텐츠를 무료 제공한다. 아침·저녁 명상 2종, 호흡명상 20종, 자애명상 11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용자가 AI 스피커 누구에 대고 “아리아- 마음보기에서 힐링 명상 들려줘”, “아리아- 마음보기에서 5분 명상 들려줘”라는 식으로 말하면, 누구가 카테고리별 또는 시간별로 5~15분 분량의 명상 콘텐츠를 자동으로 추천해 들려준다. SK텔레콤은 향후 명상 콘텐츠를 지속 업데이트해 나갈 예정이다. /고광민 기자

## ‘채팅+’ 가입자 2천만명 돌파

### 그룹대화, 최대 100MB 파일 전송·선불·송금 스마트폰 36종 지원...연내 기업형 서비스 출시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최근 차세대 메시징 서비스 ‘채팅+(플러스)’의 가입자가 2,000만명을 넘었다고 24일 밝혔다.

통신 3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서비스를 시작한 채팅플러스는 6개월 만에 가입자 2,000만명을 달성했다.

특히 가입자의 85%가량은 월간 순이용자(MAU)로 대다수 사용자가 가입 후 꾸준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팅플러스는 차세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RCS·Rich Communication Services)로, 스마트폰에 기본 탑재된 앱에서 그룹 대화·최대 100MB 파일 전송·선불하기·송금하기·읽음확인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채팅플러스는 5MB 이하 사진이나 동영상·메시지를 보낼 때 별도 데이터 차감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단, 파일이 5MB를 넘을 경우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가 차감되거나 요금이 부과된다.

3월 기준 채팅플러스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은 36종이다. 이달 초 출시한 ‘갤럭시 S20 시리즈’를 포함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새 스마트폰에도 탑재될 예정이다.

이상구 SK텔레콤 메시징사업본부장은 “연내 채팅플러스의 기업형 서비스인 ‘비즈 RCS’와 ‘챗봇’ 등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환 KT 5G/GiGA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서비스 개선을 통해 채팅플러스가 고객들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창국 LG유플러스 컨슈머 사업그룹 상무는 “향후에도 통신 3사와 협력해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탑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SW선도학교 2,011개 선정 정부, 247개교 AI 시범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최근 2020년 소프트웨어(SW) 교육 선도학교 2,011개교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247개교에서 인공지능(AI) 교육을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SW 교육 선도학교에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원·학부모 대상 특강 등을 실시한다.

SW 교육 선도학교 선정은 2015년 228개, 2016년 900개, 2017년 1,200개, 2018년 1,641개, 2019년 1,834개로 매년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91개 ▲부산 88개 ▲대구 100개 ▲인천 76개 ▲광주 46개 ▲대전 48개 ▲울산 30개 ▲세종 9개 ▲경기 525개 ▲충남 117개 ▲전남 166개 ▲경북 148개 ▲경남 183개 등이다. 특히, 정부는 이 가운데 AI 시범 운영 학교로 선정된 학교에서 AI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원연수와 교사연구회를 지원해 학생 수준에 적합한 AI 학습 자료를 보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된 개학 일정에 맞춰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개학과 동시에 교육 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최근 홍콩 PCCW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LG유플러스의 5G 가상현실(VR) 콘텐츠를 공급하기로 했다.

## LGU+, 홍콩텔레콤에 VR콘텐츠 수출

### 120여편 콘텐츠 제공

LG유플러스는 최근 홍콩 PCCW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LG유플러스의 5G 가상현실(VR) 콘텐츠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LG유플러스의 5G 콘텐츠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 차이나텔레콤에 5G 콘텐츠와 솔루션을 수출한 이후 두 번째다.

PCCW그룹 계열사인 홍콩텔레콤(HKT)은 가입자 430만명을 보유한 홍콩 1위 통신사이고, 홍콩은 다음 달 1일

부터 5G를 상용화한다.

LG유플러스와 홍콩 PCCW그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 만날 수 없어 이메일로 계약서를 주고받았고, 컨퍼런스 콜과 화상회의 등으로 계약을 성사시켰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제휴에 따라 국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U+VR 내 K팝 음악방송 등 120여편의 VR콘텐츠를 제공하게 된다.



KT는 최근 개인형 가상현실(VR) 서비스인 ‘슈퍼VR’에 몰입형 영어 교육 콘텐츠 3종과 VR 원격 모임 서비스 등을 추가했다. /KT 제공

## “이제는 VR로 영어 공부하세요”

### KT ‘슈퍼VR’ 교육콘텐츠·원격 서비스 추가

KT는 최근 개인형 가상현실(VR) 서비스인 ‘슈퍼VR’에 몰입형 영어 교육 콘텐츠 3종과 VR 원격 모임 서비스 등을 추가했다고 24일 밝혔다.

KT는 슈퍼VR을 통해 ‘스피나우’, ‘리브 앤 이즈’, ‘VR각영어’ 3종의 몰입형 영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피나우’는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한 영어 강사와 영어 회화 연습을 할 수 있는 서비스고, ‘리브 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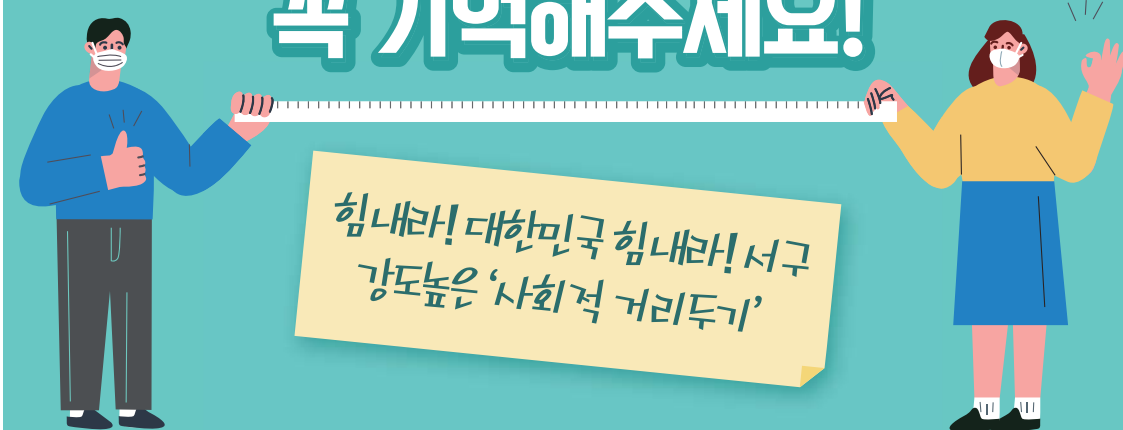
이즈’는 해외에 있는 원어민 교사와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로 만나 실시간 일대일 대화를 하는 서비스다. ‘VR각영어’는 중학생 필수 영어단어 1,440개를 학습할 수 있다.

아울러 KT는 회의실이나 스튜디오, 강당 등 30여종의 가상 공간을 활용해 문서나 유튜브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모임 플랫폼 ‘인게이지(Engage)’를 제공하기로 했다.

## 전남매일 캠페인

### 코로나19 극복 사회적 거리두기

# 4월 5일까지 15일간 2m유지, 외출자제를 꼭 기억해주세요!



###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서구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 국민 행동 지침

-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모두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